

금주의 키워드



■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의미함.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특히,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의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함
- 종합대책 수립: 행정안전부 중심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
- 상황관리 체계 구축: 풍수해 위기 경보 발령, 재난 문자 발송, 비상 근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난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
- 재난 대응 훈련: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응급처치 훈련 등을 반복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

정책사례

☞ 제목을 클릭하면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경기도, 여름철 대비 하천재난 위험요소 점검, 287건 지적... 우기 전 조치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여름철 사전대비 하천관리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전 조치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유지관리 및 수해복구 사업, 정비사업(도 직접·시군대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제방·호안 등의 유지상태 ▲하천내 장애물과 불법 점용 상태 ▲진행 중인 하천 공사현장 안전관리 상태 및 수방대책 수립 등을 살폈다. 점검을 통해 총 287건을 지적했으며, 긴급복구가 필요한 현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으나, 경미한 사항 77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완료했다. 또 제방 유실 등 보완이 필요한 8개소는 도·시군 합동점검을 통해 조치계획을 수립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점검은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라며 "우기 전까지 모든 사항을 철저히 관리해 재해 없는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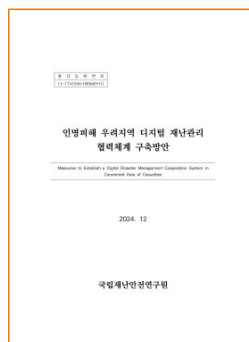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양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도자료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지역 재난안전세미나(국립재난안전연구원, '24. 9. 10.)
기후재난 약자 보호·선제적 안전점검... 서울시, 여름철 종합대책 가동(서울시, '25. 5. 15.)
고양시, 2025년 여름철 재난대응체계 본격 가동...집중호우 대비 총력(고양시, '25. 5. 15.)

연관자료



연구자료

인명피해 우려지역 디지털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방안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미란, 이수아



참고자료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발표

행정안전부